

〈제 552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2천만원 기부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휴머니티(humanity)'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에 개막하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위성호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방안 및 지역의

문화사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리게 되며, 광주은행은 그 동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 기아차 광주공장

### ◆ 환경·에너지캠프 개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12일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공장 인근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아차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해 광주공장 견학, 무등산 생태탐방원 견학,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다.

환경·에너지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더불어 자동차 생산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아차 광주공장과 한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행사이다.

## 보해양조

### ◆ 보해복분자주 필리핀 시장도 진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2일 필리핀 현지에서 보해복분자주를 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마무리 하고 9월 중 첫 물량을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가 만든 복분자주가 유럽에 이어 필리핀 시장에서도 수출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켜 해외 판매망을 한층 더 넓히게 됐으며, 이번에 수출될 물량은 6만 5,280병으로 컨테이너 5대 분량이다.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업체들의 소주가 진출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해는 이러한 현지 시장에서 구매력이 탄탄한 필리핀 중상류층과 중국인 화교,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고급주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15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16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15회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센터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생애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모듈을 활용한 집단상담 교육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구직자 49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사무국 일지(8. 12 ~ 8. 16)

8. 13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산구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참석</li> <li>● 산업안전심사회의 참석</li> </ul>	8. 16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55회 금요조찬포럼</li> <li>● 중장년센터 제1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li> </ul>
--------------	--	--------------	--

### 〈제1455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월16일 오전 7시 산양파크호텔에서 이준협 국회의장연수원 교수를 초청 <2019~2020 경제전망>이란 주제로 제145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위대한 미국 재건과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아래 미국은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실현이라는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이민규제 등의 통상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에서 신형국제관계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는 경제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경제환경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최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간 경제단체와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에 의하면 향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은 1.9%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 역시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2019년 60달러 초반, 2020년 50달러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율은 원화 약세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풍부한 달러유동성 덕분에 1,200원~1,300원/달러 수준의 등락이 예상된다. 우리경제는 하락세를 지속하다 20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등의 회복과 함께 수출투자가 회복세로 진입이 예상되며 건설경기는 21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경제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별 혁신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